

장수군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장영수 군수, 국회 예결위원 등 접견 국가예산 확보 현안사업 설명

장영수 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품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14일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해철 의원(민주당 예결위 간사), 송갑석 의원(예결소위), 이용호 의원(국토위)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이 2020년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은 국도 ▲13호선(장수~천천)2차로 개량사업(757억 원) ▲국도26호선(진안~장수)2차로 개량사업(941억 원) ▲장수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175억 원) ▲장수~천천 하이패스 IC설치(160억 원) ▲장수 가야 유적 복원정비 사업(120억 원) ▲송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24억 원) ▲갈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30억 원)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총 예산 2,207억 원 국비는 1,836억 원에 이른다.

장영수 군수는 "2020년 국가예산이



장영수 군수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해철 의원, 송갑석 의원, 이용호 의원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 의결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기재부 관계자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며 "예산 4000억 시대 장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

된 정부안은 이날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되며, 장수군은 남은 기간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적극 추진

100가구 확정 후 추진 중

진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막바지 사업 물려에 나섰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월초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100가구를 확정 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이거나,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 또는 도시에서 진안군으로 이주하려는 자(무주택)며,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이다.

군은 11월 초 사업절차 안내문을 보내고 사업부진 대상자에게는 개별 전화 상담을 통해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미완료 대상자는 12월 15일 이내 사업 착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2020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혜택은 취득세 280만원 및 측량수수료 30% 감면, 연리 2%의 저금

리 용자다. 단,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업 연장 등 자세한 사업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함께 빈집정비사업, 희망하루스 빈집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겨울철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무주군이 겨울철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하은의 집과 반디누리작업장, 수어통

역센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등 5곳이 대상이다.

무주군은 22일까지 △폭설과 동파, 난방 등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상황을 비롯해 △안전교육훈련과 △책 임보험, 소방,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으로, △피난구

조설비 설치 현황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동철 장애인복지 팀장은 "날이 추워지면서 화재나 동파 등 시설안전부터 여러 가지 이용 편의까지 두루 살피고 있다"라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따뜻한 겨울나는데 도움됐으면"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 배추 100포기 기부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100포기를 무주군 부남면 하은의 집에 기부했다.

13일 배추를 수확한 교육생들은 이를 시설 측에 전달하며 김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생 김승필 씨(55세, 서울)는 "귀농을 꿈꾸며 그간 흘린 땀과 보람이 이웃들에게 전달돼 기쁘다"라며 "배추가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어 시설에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하는 것으로, 참여 세대에 각각 거주공간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며 학습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 1동도 마련돼 있다.

올해 교육생 9세대 15명은 토마토 재배시설 1동(660㎡)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1동(170㎡), 고추와 고구마, 배추,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1,235㎡)에서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농기계, 농산물 재배 및 판매 교육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수료한 교육생은 총 12세대 20명으로 이중 6세대 12명이 무주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입교한 교육생 중에서는 4세대가 정착의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장수군이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설해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장수군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강설에 대비해 도로변에 90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산간고지대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비치했으며 소금, 열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자재 2,500여 톤을 확보했다.

특히 임대차량 4대, 덤프트럭 1대, 다목적 차량 1대 등을 확보해 빠른 제설작업을 진행해 도로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매년 동절기에는 도로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재해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조치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국민의 숲 가꾸기 체험행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무주군 설천면 진평마을과 국민의 숲(단체의 숲)으로 협약 체결한 청량리 편백나무 숲에서 마을주민과 무주군, 덕유산국립자연휴양림, 무주군산림조합 등 산림유관기관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일 체험행사를 14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미래 숲을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속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매년 11월 한 달간을 '숲가꾸기(나무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진평마을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산림치유 효과가 높은 편백나무 숲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큰 나무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풀베기 등의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자 마을주민과 산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자라이프로 매우 뜻 깊다.

진평마을 서병국 이장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된 편백나무 숲이 우리 마을을 찾는 도시민에게 좋은 치유 숲으로 활용된다"면서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앞으로도 협약 체결된 국민의 숲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기에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울창한 편백나무 브랜드 숲으로 가꿔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정보화 실무능력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진안 다문화가족 정보화실무능력대회 '석권'

김동현·응우엔티옥히엔, 여기부 장관상

진안군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정보화 실무능력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21일 전북대학교 대회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 제16회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이하 전복대회)와 아이탑(I-TOP) 경진대회에서 진안 다문화가족 5명이 정보 기술분야 본상(대상, 특별상, 우수지도자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말 심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탑(I-TOP) 경진대회에서 김동현(부귀

중, 다문화)군과 응우엔티옥히엔(베트남, 다문화)씨가 대상을 차지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이수용(진안초, 다문화)군과 △관옥미(베트남, 다문화)씨가 특별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을, △이재성 강사가 우수지도자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을 차지했다.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에서는 △이재성 강사가 대상으로 전라북도의장상을, 응우엔티옥히엔(베트남, 다문화)씨가 최우수상으로 전주문화방송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 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